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앞산에서 꾀꼬리 한 마리가 울고 있다. 저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정겨운 갈망이 느껴진다. 마을 뒷산에서도 꾀꼬리 한 마리가 앞산 꾀꼬리와 같은 소리로 운다. 울음을 주고받다가, 앞산 꾀꼬리가 내 머리 위를 지나 뒷산으로 노랗게 날아간다. 그때다. 뒷산에서 울던 꾀꼬리가 밤나무 숲에서 나오더니, 둘이 만나 이장네 집 지붕을 넘어 남산으로 날아간다. 새들은 표정이 없다. 몸짓이나 소리로 뜻을 전한다.

강 건너 발로 갔다. 고추밭 사이로 걸어들었다. 밭 끝에는 아내가 재작년에 심어놓은 어린 단감나무가 있다. 아내가 감나무가 죽었는지 잘 사는지 궁금해할 때마다, 가보겠다, 가보겠다, 해놓고 또 잊어버리려 한 봄 한 여름이 다 갔다. 어린 감나무 두 그루 제법 의젓하다. 길이 나간 새 가지에 감을 몇 개씩 달고 있다. 잎이 두껍고 윤기가 난다. 작년 겨울의 추위로 감나무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린 감나무 감 얼굴이 불수록 아무지다. 곧 붉어질 것이다. 자연의 얼굴은 무궁하다.

내 얼굴 표정

마루에 앉아 있는데, 뒷산 당산나무에서 꾀꼬리가 운다. 두 마리가 같은 나뭇가지에서 운다. 명랑하다. 아까 그 꾀꼬리인가? 꾀꼬리 두 마리는 우리집 가까이 있는 오래된 감나무로 날아와 앉아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다가 밤나무 가지로 날아가 왔고, 앉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나무로 날아가 앉기를 반복한다. 즐거운 놀이다. 밤송이가 주먹처럼 굵어지고 있는 밤나무 숲에서 우는 꾀꼬리의 일은 '자연 선택'이다. 자연 선택은 복잡할수록 아름답다고, 그 한계는 없다고 찰스 다윈은 말한다.

방에 들어와 컴퓨터를 켜고 신문을 9개 정도를 클릭해서 본다. 사실, 칼럼, 기획 기사, 건축, 그림 전시 기사, AI 기사, 연애, 영화, 축구 명장면, 인구문제, 지역 소식, 정치평론가들의 글이나, 정치인들의 인터뷰 기사들을 쟁겨 읽는다. 좋은 글은 복사해 따로 저장해둔다. (이건 내 하루 시작 루틴이다.) 내가 제일 관심이 있게 보는 것은 정치인의 말이다. 정치인의 언어 동원 능력과 선택한 그 언어 개념의 범위, 어휘 사용 기술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역량과 능력, 인간성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다.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시대를 읽는 정치 철학과 신념이, 어디까지인지 짐작하게 한다. 정치인들이 입고 있는 옷, 머리 모양, 안경, 얼굴 표정, 걷고 서 있는 자세, 눈빛, 손짓은 그 사람의 정치력 확장 가능성을 믿게 해준다.

이제 일기를 쓰고 내다 써놓은 시를 검토할 차례다.

일기를 쓰려고 화면을 펼치다가 우연히 이런 밀도 끝도 없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페리클레스(BC 495(?)~BC 429)라는 그리스 정치가가 기원전 413년에 전물자들을 추도하는 장례식 연설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이웃나라의 관행과 전혀 다르다. 남의 것을 본뜬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들이 우리의 체제를 본뜬다. 몇몇 사람이 통치의 책임을 맡는 게 아니라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으므로, 이를 데모크라티아(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으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으로 해결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이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려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을 헛되이 살고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 우리는 전 헬라스(그리스)의 모범입니다." 출처_네이버에서 함구진의 세계 인물사

마치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님이 '우리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온화한 표정과 말투가 느껴진다. 자기 진영에 갇힌 철 지난 낡은 말이나, 아는 것 없어 보이는 거친 언사로 남의 흉이나 헐뜯는 거친 말이 아닌, 시대를 '정리'한 '시대의 말', 품격 있는 '정치적'인 정치인의 말을 우리 기다린다. 우리 인류가 가장 잘 선택한 말 중에 '민주주의'라는 말과 '정치'라는 말을 대체할 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연 선택이 아닌 인간의 선택인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표정'은 그 시대를 사는 공동체의 '표정'을 결정짓는다.

종교칼럼

나를 어떻게 조물(造物) 할 것인가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우리가 삶을 마치면 영혼만 남게 되는데 그 영혼은 유일자이자 단독자이다. 영혼이 가진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상주아(常住我)이다. 영혼이란 죽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몸과 장소를 바꿀 뿐이다. 사람이 이 몸을 떠나 영혼으로 있다가 다음 생애는 박씨가 될 수도 있고 김씨가 되기도 한다.

둘째는 구족아(具足我)이다.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것만 잘 개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만 구족한 보배라고 했다. 내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부자도 되고 부처도 되므로 구족하게 갖춘 자이라고 한 것이다. 이 자아를 잘 개발하면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처럼 우주도 들었다 났다 하고 대각도 하고 부처도 될 수 있기에 다른 말로 이를 충만아(充滿我)라고 한다.

셋째는 주재아(主宰我)이다. 조물주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조물주가 되어 나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 간다. 내가 나를 주재해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 저리 가기도 하기 때문에 영혼은 주재자이다. 조물주는 바로 나 자신이지 다른 누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조물주인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자애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넘치거나 과하면 욕심쟁이가 되고 만다. 자기를 사랑하되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사랑해야지 탐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범부 중생의 삶은 안 된다.

둘은 의타심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뜨게 되면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이 거러갈 때 모습을 구성(救身)이라고 말한다. 평소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그 습성 자체가 어디에 불기를 좋아해서 누군가에게 자주 의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타심이 일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게 된다. 보통은 돈과 권력에 의타해서 속인이 되고 어두워지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사용해서 나를 조물(造物)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해야겠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착시를 따라서 간다고 했다. 영혼이 거러갈 때 착심 있는 곳은 밝고 다른 곳은 어두우므로 착심 있는 쪽으로 가서 부도를 선택한다. 내가 가고 싶고 또 집착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것을 일러 끌어

당기는 '인업(引業)'이라고 한다. 보통은 남녀에 집착하거나 전생의 습관을 따라가는데 신앙과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따라간다. 그런데 정산 종사께서는 "원력도 혹 어두워질 수 있으니 그것마저도 놓아야 한다"고 했다. 원력을 단단히 세우고 서원을 하면 윤회를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해탈을 얻어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신앙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 최후 일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그곳으로 가서 태어나 업을 받는다고 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꾸며주는 업, 다시 말해서 만업(滿業)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집착으로 인해 강아지의 몸을 받았더라도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영혼은 예쁜 강아지로 태어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결정적일 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만업이 꾸며지고 나타난다. 우리도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쟁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최후 일념을 잘 쟁겼더라도 평소 잘 살지 못했다면 그 잘 못 살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거룩한 최후 일념이 되기가 어렵다.

서원을 잘 세우고 최후 일념을 잘 쟁겨야 잘 거래할 수 있고 또 만업도 잘 지을 수 있다. 서원과 인업과 만업으로 잘 거래할 수 있도록 보통 때 애경(愛敬)에 힘써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경례도 잘하고 선행도 열심히 하면 자연히 인업도 만업도 잘 꾸며지게 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속한 명예회복을



최효섭 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에나 지금이나 국가가 외침을 받거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목숨을 바쳐 지키고 되찾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다. 수많은 선조들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목숨을 바쳐 광복을 했음에도 요즘은 몰지각한 일부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친일행위에 앞장서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필자가 집안의 동학농민혁명 피해를 알게 된 것은 70년 전인 대어섯 살 때였다. 조부(회계식)께서 "너의 증조부(최선현)는 동학농민혁명 때 접주와 집강소장을 하였고, 고막포 전투에서 패한 후 고향 해저에서 숨어 지내다 함께 참여한 형(최장현), 종제(사촌동생-최기현)와 함께 인근 주민의 밀고로 체포돼 합평을 거쳐서 나주에 있는 '일본군 순사청'까지 끌려가서 1894년 12월 28일(음력) 세 분이 한남한시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야욕을 갖고 기회를 노리다가 1894년 봉건제도 개혁과 탐관오리 척결을 위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파병 요청이 없었음에도 6월 9일(음력 5월 6일)에 농민군 진압을 빌미로 군대를 제물포(인천)로 상륙시켰다. 이때 상륙한 병력은 육전대 488명과 순사 20명이었다. 그리고 7월 23일(음력 6월 21일)경복궁을 점령해 고종을 불모로 잡고 조선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고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전국

에서 300여만 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며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했다. 농민군은 서울로 향하던 중 신식 무기와 훈련된 일본군에 의해 공주 우금터 전투부터 장흥 석대들 전투까지 무자비게 진압을 당해 30여 만명이 살상을 당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100주년이 되던 해인 2004년 3월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복돋우며,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기념사업을 정부를 하여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항하다 살상을 당한 수많은 농민군은 아직까지 단 한분도 국가독립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명예회복 대상자 접수 결과 현재 참여자 3817명, 유가족 1만3394명이 등록됐을 뿐이다. 등록이 저조한 사유는 전사자 중에는 가족이 없거나 역적으로 몰리지 않으려고 참여한 사실을 숨기거나, 의병으로 활동하다 전사 또는 하와이 및 멕시코 사망수능장으로 이인을 가기도 하였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대기와 친일파들은 교육과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지만 살아남은 참여자와 후손들은 목숨을 부지하느라 가난하고 못 배워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사망 또는 잊었기 때문이다. 법률로 '동학농민혁명'이라 정하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동학농민군들의 명예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본

군이 자기 나라와 상관없는 다수의 농민군을 잔악하게 살상한 만행이 알려지는 것을 덮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 일어난 소규모 사건으로 축소 왜곡하는 뉴라이트나 친일파 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방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정부정책 시행자도 특별법 제8조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다행한 것은 여러 지역에서 항토사학자들의 노력으로 지역 동학농민혁명역사 찾기와 추모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장흥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전사한 무명 농민군의 묘소 두 곳(1000여 기)을 자발적으로 벌초하고 추모하고 있다.

또한 무안군 유족회와 기념사업회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무안군의 지원을 받아 위령제,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사 발굴, 학술발표대회, 동학농민혁명정신 확산을 위한 중·고·대학생 연구 발표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무안이 서남부도 호사 대접주인 배상옥(규인) 장군과 83명의 참여자를 발굴했으며 매년 12월 위령제를 모시고 있다. 나주 김 씨 문중은 문탄면 차피마을에 김응문·자문·덕구·영구, 해주 최 씨 문중은 해저면 석산에 최장현·선현·기현의 실적비를 세워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업을 알리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방화로 실패했지만 보국안민(輔國安民), 적양척왜(斥洋逐倭) 자주·평등 정신은 의병활동, 독립군 활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화문 촛불집회 등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다. 정부는 목숨을 바쳐 봉건제도 개혁과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항하다 순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가족들의 애국애족 정신이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명예회복과 국가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社說

교육도시 광주, 글로벌대 4년제 한 곳도 없다니

전남대가 '글로벌대학 30' 선정(본지 정)에 탈락하면서 지역 사회를 실망케 했다. 조선대는 본지정에 앞선 통과절차인 예비지정 대학에 들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평가 대상은 아니었다. 이로써 광주지역 예비지정 대학가는 이번엔 전남대가 선정돼야 내년 글로벌대학 지정에 경쟁자가 줄어들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번 '글로벌대학 30'에서 전남대의 선정 여부는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가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전남대는 지역 거점 대학이라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선정돼야 할 이유가 있었고, 광주지역 대학가는 이번엔 전남대가 선정돼야 내년 글로벌대학 지정에 경쟁자가 줄어들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한 실정이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그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벌대학 30' 본지정 대학 10곳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국립 목포대와 광주보건대 등 2곳이 선정됐다. 목포대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발전 계획을, 광주·대구·대전 3개 보건대 연합은 중장기적 '한국보건대' 체제로 통합을 혁신 계획으로 제출했다. 전남대와 동신·초당·목포과학대 연합은 예비지정에 통과했으나 본지정은 탈락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전남에서 순천대만이 글로벌대학에 뽑혔다.

광주지역 4년제 대학들의 글로벌대학 선정의 참패는 단일인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난 평가에서 예비지정에 도전했던 조선대와 이번 본지정 평가의 전남대는 모두 대학의 규모만을 믿고 '실마 우리 대학이 떨어지겠어'라는 분위기가 상당했었다. 이제라도 전남대와 조선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평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없어 개업한 고령층 영세 자영업의 위기

불행의 장기화로 자영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타지역에 비해 내수시장의 펀더멘탈이 약한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가 적다 보니 자영업의 고령층 비율이 높고,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비율도 역시 최고 수준이다. 더불어 영세하다 보니 1인 자영업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뿐만 아니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벌린 돈을 갚지 못해 폐업도 못한 채 버티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자영업자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는 2019년 1880건에서 4년 만인 2023년 3010건으로 60% 이상 증가했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1380건에서 1980건으로 115.4%로 급증했다. 광역시와 광역도의 평균 수령 건수가 각각 45%, 56%였던 점에 비추면 광주·전남의 폐업 증가는 열악한 지역 경제의 실상으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개업하려는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광주는 10만 3000명, 전남은 26만 8000명에 달하며, 그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52.7%로 광역도 단위 평균 38.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같이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은 이윤 창출형이라기보다는 생계형, 오히려 적자형에 가까운 탓에 그들의 부채는 4년여 만에 60%나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은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1인 자영업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직업으로서 자영업에 택한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다수가 일자리를 못 찾거나 또는 생계상 개업을 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업들과 협의해 고령층의 고용을 끌어 올려, 고령 창업을 줄이고 내수시장을 키워야 할 때이다.

無等鼓

엄혹한 시절 무등야구장은 호남민들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현실은 설움이 가득했지만 그라운드에서만은 두려울 게 없었다. '호랑이 군단'은 적수 없는 승부로 팬들의 시름을 달래줬다. 관중석에 울려 퍼지는 남행열차와 목표의 눈물은 그냥 응원가가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외침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드팬들은 해태의 몰락을 지켜 봐야 했다. 야구도 더 이상 예전의 생존 같은 야구가 아니었다. 2014년 챔피언스필드라는 화려한 새 안방이 생겼지만 무등경 기장의 향수가 짙게 남았고, 올드팬들의 발길 이 끊어지기도 했다.

2024년 야구장이 새로운 해방구가 되고 있다. SSG와의 경기가 열린 28일 챔피언스필드에는 무더위에도 1만 3155명이 입장했다. 이와 함께 누적 관중 100만 215명이 되면서 타이거즈의 두 번째 '100관중' 기록이 달성됐다. 인구 140만 개의 도시에서 이런 놀라운 기록이다. 지난 2017년 KIA는 뜨거운 화력으로 신바람 질주를 하면서 첫 1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7년 만에 그리고 2017년 70경기보다 11경기 앞선 59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올 시즌 KIA의 평균 관중은 1만 6953명이다. 야구가 열리는 날 광주 시민 100명 중 1명은 야구장을 찾는다라는 계산이 나온다.

관람석 분위기도 예전보다 더 뜨겁고 흥겹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했다. 텅 빈 관중석을 경험했던 선수들은 팬들의 가치를 알게 됐다. 팬들은 단순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경기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다.

'K응원'도 흥행의 한 축이 됐다. 신나는 응원가에 맞춰 팬들은 야구 문화를 즐기기도 했다.

KIA 응원 춤 '빠기빠기'는 뉴유타임즈에도 소개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도 있다.

무엇보다 올 시즌 가장 큰 흥행 요소는 '1위'와 '김도영'이다. KIA는 2017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김도영이 프로 세 번째 시즌 '슈퍼스타'로 비상하면서 팬들을 몰고 다니고 있다.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KIA와 김도영에 이어, 관중석에서도 놀라운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header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